

조용했던 산골 무주가 들썩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방문객 발길 이어져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조용했던 산골 무주가 날마다 흥겹다. 낮에는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에서 찾아오는 발길들로, 또 밤에는 가족, 이웃, 동료들과 마실 나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것.

'키즈 데이'였던 5일에는 종일 어린이 뮤지컬 '알리바'를 비롯한 '별문아트 공연'과 '무주중학교 연극공연', '영화음악 갈라쇼', '소녀가수 '완이화' 콘서트'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했다. 반딧기즈 체험존에서는 '샌아트'와 '비눗방울', '곤충 레이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풍루(지남공원) 친환경 플레이 존은 전통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공간(생태놀이터)으로 쥘리인과 해머, 그리고 목재놀이기구 등이 설치돼 있으며 예체문화관 P2 주차장에 마련된 친환경 반딧기즈에서는 빛과 물, 모래 등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놀이가 가능하다. 반디 분수가 시원한 재미를 선사한다.

빛과 그림자를 조화시켜 한껏 분위기를 살린 반디마루광장(예체문화관 광장)은 커피와 음료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와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예체문화관 주차장과 최북미술관, 전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조용했던 산골 무주가 날마다 흥겹다.

통공예촌 광장은 날마다 시간별로 이어지는 버스킹 무대가 즐겁다. 휴식과 관람, 간식이 함께 해 인기. 특히 최북미술관 광장에서는 밤마다 EDM, 7080 가요, 퓨전국악, 현악 3중주 등 다양한 음악과 수제 맥주, 비비큐 등 먹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등나무운동장 주무대 공연과 토크쇼도 빼놓을 수 없다. 8일에는 가수 홍진영과 임찬, 박성현, 9일에는 가수 김범수와 DK(한대규), 폐막식에는 윤도현 밴드와 팡페라 가수 고현주 씨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개그맨 김영철 씨(6일)와 스타가수 김미경 씨(8일)가 진행하는 반디토크 콘서트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일까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찾은 방문객 수는 18만여 명(9월 5일 22시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4일간의 체험과 전시, 공연 무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 시 무주로의 힐링(healing) 여행'을 주제로 오는 오는 10일까지 9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26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2개의 전시프로그램, 15개의 공연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일회용품과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無)축제로 진행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흑삼 육성 '탄력'

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 선정 쾌거

진안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4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업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침체된 인삼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지역특화품으로 흑삼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선정은 올해 전국에서 최종선정된 6개 시·군 중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군이 청정 진안고원 명품 홍삼·흑삼 선도단지 육성을 비전으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된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진안군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2024년~2025년까지 2년간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흑삼'은 홍삼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호흡기, 간기능, 전립선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원료이며,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제초·검사기준이 법제화되어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산업화 기반이 조성된 상태다.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군에서 주도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진안 흑삼 브랜드 조성, R&D연구, 생산시설지원 등 홍삼특구 명성을 이어갈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안고원 흑삼이 품질과 경제성에 차별화를 갖고 흑삼 선도단지로서 지역 대표 특화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펼쳐

진안군은 제15회 자원순환의 날(9.6.)을 맞아 6일 진안로터리 일대에서 '지구를 지키는 착한습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은 플라스틱과 작별(안녕, Bye)을 다짐하는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1회용품과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를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은 매일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관내 음식점, 카페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안 태우고, 안 묻고, 안 버리기'의 '쓰레기 3NO운동'과 마을로 찾아가는 환경리더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홍로사과' 본격 출하 시작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이자 추석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장수사과 홍로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추석 사과로 불리는 장수 홍로사과의 수확이 대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다.

장수사과는 해발 500m 이상의 고원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적 특성상 충분한 일조량과 10도 이상의 일교차 때문에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의 경우 병해, 긴 잠마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사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오는 8일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 판로 확보에 다각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전통놀이 재연 알차

산의실 솟대 세우기 등 6개 재연

올해도 주민들이 함께하는 전통놀이 재연 덕분에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풍성해지고 있다. 개막 첫날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작을 알렸던 '산의실 솟대 세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놀이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

이 시간은 잊혀져 가는 옛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기하는 기회이자 '무주다움'이 전하는 위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본 이안행렬'까지 전통놀이 6개가 재연될 예정이다.

2일 예체문화관 광장에서 진행됐던 '산의실 솟대 세우기'는 무주읍 내도리 산의실 마을에서 전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액과 초복을 관장하는 신에게 풍농과 안녕을 기원하던 정월 보름 공동체 마을굿이다. 이날은 산의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바탕 공연

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일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 '무주농악보존회 공연'은 무주농악보존회에서 보존·전승해 오고 있는 공연으로 진취적인 가락이 점점 고조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진풀이와 상모놀이 불거리가 됐다.

'무주 부남뱃소배물이 굿놀이'는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나룻배가 낡아서 배를 묶을 때(새로 배를 만들다) 하던 의식으로 집집마다 곡식과 금전을 모아 배를 묶은 후 길일을 택해 '뱃소배물이 굿놀이'를 했다. 부남면 민속놀이보존회원들이 함께 지난 5일 등나무운동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7일에는 '무주 부남디달방아액막이 놀이'가 오후 6시부터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오는 8일과 9일 밤 9시부터 남대천에서 개최된다. 낙화놀이 보러 반딧불축제에 온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팬층이 두터운데 올해는 지난 2일과 3일 드론쇼, 불꽃놀이와 함께 재연돼 인기를 모았다.

무주군민 365명이 출연하는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본 이안행렬 재연' 행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한풍루 사거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전북소방본부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5일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한사랑유치원을 방문해 전북소방본부 소방안전조사팀과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단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인 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3년 하반기 소방본부·소방서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합동 화재안전조사는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한사랑유치원에서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활용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잠금행위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소방시설 작동상태·관리 및 소방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실태 확인 △관계인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유형한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합동 화재안전조사로 화재안전조사단의 전문성 강화 및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더욱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16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진안군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른 조치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1인,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료 한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3-430-8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